교육·학습을 위한 AI 활용 · 쉬운 설명

서술형을 싫어하던 초1의 공부 도우미

문제집 세 권 채점, 오답 다시 풀기, 좋아하는 주제로 글쓰기, 아침 준비물 챙기기를 한곳에 모았습니다.

661
채점한 문제

88%
정답률

79
원인별로 모은 오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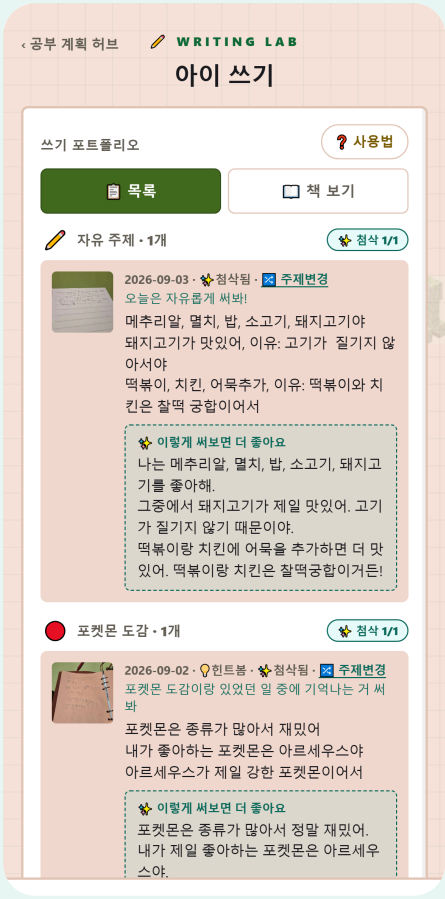
2단원
심화책 37→58쪽



책·단원별 정답률



단원을 마치면 섬 완성



첨삭 전·후 비교

왜 만들었나

세 권 진도, 틀린 문제, 글쓰기, 준비물

전

· 문제집 세 권의 진도가 달라 어디까지 했는지 헷갈림
· 틀린 문제를 다시 풀게 하기 어려움
· 서술형 문제를 싫어함
· 글쓰기는 무엇을 쓸지 몰라 시작을 못 함
· 요일마다 다른 학원·준비물

→

지금

· 단원 기준으로 세 권 진도를 한눈에
· 틀린 문제가 카드로 다시 나옴
· 서술형은 문장 조각 맞추기로 연습
· 좋아하는 주제로 세 줄 쓰고 첨삭
· 「오늘 뭐 챙기지」를 매일 아침

하루 흐름

아침
오늘 뭐 챙기지
학원·준비물 체크

→

문제 풀기
채점한 쪽
사진 찍기

→

기록
맞은 수·틀린 수
틀린 원인

→

다시 풀기
오답 카드
서술형 조각

→

글쓰기
세 줄 쓰고
Claude 첨삭

아이에게 생긴 변화

글씨가 좋아졌고, 싫어하던 서술형 수학 문제도 나아졌습니다. 가장 어려운 심화 문제집도 6주 동안 37쪽에서 58쪽까지, 두 단원을 끝냈습니다.

수학

채점 사진 한 장이 오답노트가 됩니다

채점한 쪽을 찍어 맞은 수·틀린 수를 적으면, 틀린 원인(실수·문제 이해·개념·표현)과 책·단원별 정답률이 쌓입니다.



기록



오답노트



통계



이번달 도장

재미 장치

공부한 날마다 도장이 찍히고, 단원을 마치면 지도 위 섬이 완성되며, 뽑기로 작은 상을 받습니다.

글쓰기 · 준비물

좋아하는 주제로 세 줄, 그리고 첨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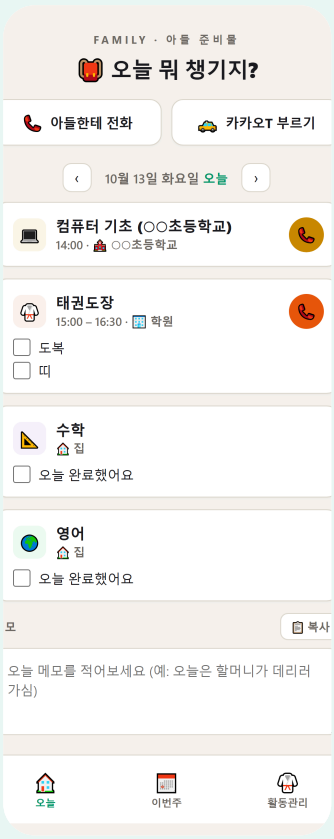
아이가 좋아하는 것(포켓몬, 과학 크리에이터 등)으로 주제를 고르고 힌트를 보며 씁니다. 제가 그 글을 Claude에게 보여 주고 초1 눈높이로 첨삭을 받아, 앱에서 전·후를 비교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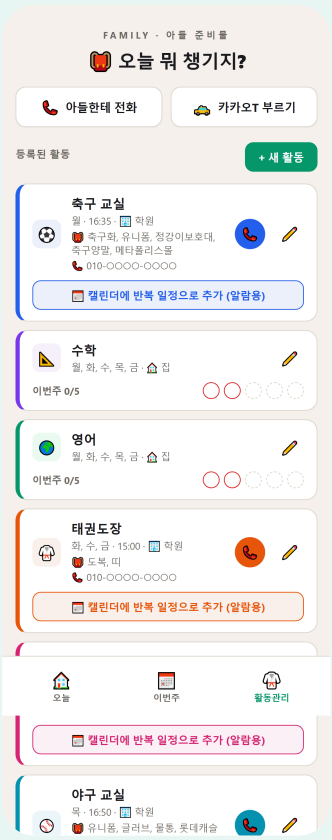
오늘의 쓰기



첨삭 전·후



오늘 뭐 챙기지



활동·전화 버튼

제가 말해서 생긴 것

학원에 바로 거는 버튼, 아이에게 바로 거는 버튼, 카카오택시 부르기 버튼. 써 보면서 불편한 점을 말하면 바로 고쳤습니다.

따라 하기

앱이 없어도, AI 채팅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

1. 아이가 쓴 글을 AI에게 보여 주고 **"초1 눈높이로, 칭찬 먼저, 고칠 곳은 한두 군데만"** 첨삭을 부탁합니다.
2. 틀린 문제 사진을 보여 주고 **"왜 틀렸는지 실수·이해·개념 중 하나로 알려 줘"**라고 묻습니다.
3.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알려 주고 **"이걸로 세 줄 글쓰기 주제 다섯 개"**를 받아 씁니다.
4. 더 하고 싶다면 AI 코딩 도구에 "초등 1학년 수학 오답노트 앱을 만들어 줘"라고 시작하면 됩니다.

지킨 것

아이 정보는 가족 안에서

아이 사진과 글은 가족만 보는 곳에 둡니다. 이 자료에서도 이름·학교·학원·전화번호를 가렸습니다.

첨삭은 고르는 것까지

AI 첨삭을 그대로 붙이지 않고, 아이와 전·후를 같이 보며 고를 문장을 정합니다.